

전주국제영화제 시작 기억하다

故 송길한 작가 기리기 위한 특별공로상 수여·추모 상영 마련
임권택 감독과 함께 한 ‘비구니’ 상영·프로그램 이벤트 기획

전주국제영화제(공동집행위원장 민성욱·정준호)는 故 송길한 작가를 기리며 추모 상영을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송길한 작가는 전주국제영화제의 시작부터 해 깊은 인연으로 맺어져 있다. 우선 고인은 전주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 초대 부위원장을 역임하며 영화제의 초석을 다졌다. 영화제 외부 영향력을 차단하고 독립·대안영화를 중심으로 하는 전주국제영화제의 방향성을 구축하는 것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오늘날 전주국제영화제가 국제영화제로서 위상을 갖추는 것에 기여했다.
조직 위원으로 활동할 당시에는 변영주 감독의 다큐멘터리 영화 ‘지역 영화사-전주’의 시나리오를 집필하며 한때 ‘영화의 도시’라 불렸던 전주를 추억하고 전주국제영화제의 본격적인 출범을 선언했다. 한국영화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작가라는 점에서 2017년 제18회 전주국제영화제는 ‘작가 송길한, 영화의 영혼을 쓰다’ 특별전을 기획·진행해 40여 년간 시나리

오 작가로 활동한 고인의 생애, 이력, 작품 세계를 조망하기도 했다.
제26회 전주국제영화제는 지난해 12월 별세한 송길한 작가를 추모하기 위해 특별공로상을 수여하고 ‘故 송길한 작가 추모 상영’을 개최하기로 했다. 추모 상영작으로는 1984년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제작 규모에 임권택 감독, 정일성 촬영, 송길한 각본, 김지미 주연 등 호화 라인업까지 갖춰 제작을 시작했으나 불교계의 반발로 제작 중단된 ‘비구니’가 보여진다. 미완성 영화인 이 작품 안에는 제작 당시 상황을 알게 하는 관계자 증언이 담긴 다큐멘터리가 포함됐다.
“영화는 통제받아서 안 되는 거야. 영화가 통제받았을 때 잔해가 어떻게 나오는가. 그 결과를 보고 표현의 자유가 침해받은 역사도 생각해보자는 거지”라고 ‘작가 송길한’에 수록된 고인의 말처럼 이번 추모 상영은 예술과 자유에 대한 고인의 정신까지 기릴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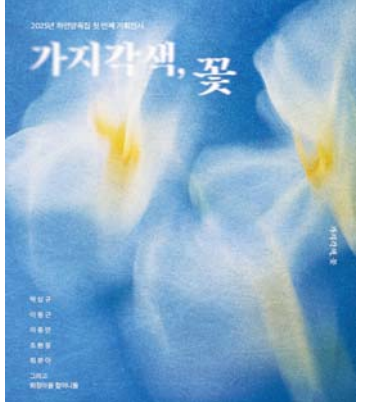
故 송길한 작가

‘故 송길한 작가 추모 상영’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주국제영화제 공식 홈페이지(<https://www.jonjufest.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은성 기자

예술인과 도민 잇는 작은 음악회

26일 하안양옥집서 ‘가지각색, 꽃’ 참여 작가 등과 사색 공유

오는 26일 오후 3시 하안양옥집에서 작은 음악회가 열린다.
24일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하안양옥집의 첫 번째 기획 전시 ‘가지각색, 꽃’에 참여한 작가들과 완주 고산면 화정마을 할머니들이 한자리에 모여 창작의 기쁨과 사색을 공유하는 자리로 기획됐다.
작은 음악회에는 자니스튜디오와 김정일 밴드의 공연과 함께 작가와 할머니들이 함께 꽃꽂이 화분을 만드는 참여형 퍼포먼스를 통해 ‘꽃이 피어나듯 희망도 피어나길 바란다’라는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이경운 대표이사는 “예술인과 도민이 창작의 경계를 넘어 함께 경험을 공유하고 교류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전시 공간이 더욱 따뜻한 문화의 장으로 확장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1일부터 선보이고 있는 기획 전시 ‘가지각색, 꽃’은 꽃을 주제로 창작 활동을 이어온 전북 작가 이종만, 박상규, 조현동, 최보아, 이동근의 회화 작품과 화정마을 할머니 12인의 그림을 선보이고 있다.



전시는 4월 27일까지 하안양옥집에서 운영되며, 관람은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다만, 월요일은 휴관한다.
전시 및 행사 관련 문의는 예술회관운영팀(063-230-4231)으로 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한글서예’의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추진단이 24일 본격 발족했다. 사진은 이날 열린 첫 회의에서 송하진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조직위원장을 비롯한 추진단원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서예인들, ‘한글서예’ 유네스코 등재 한마음 한 뜻

추진단 본격 발족 총 23명으로 구성

‘한글서예’의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추진단이 본격 발족했다.
이에 따르면 추진단은 총 23명으로 구성, 자문위원회와 전문위원회로 나뉘어 한글서예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국제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다각적인 전략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조직위원장과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공동 위원장을 맡아 운

영하며, 학계 및 서예계 전문가들이 협력해 등재 추진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를 진행하게 된다.
24일 첫 회의에서 추진단은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논의했다. 서예인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 한글서예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김관영 도지사는 “한글서예의 유네스코 등재는 전북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문화적 위상을 높이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추진단과 협력해 체계적인 등재 준비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송하진 조직위원장은 “오늘 이 자리는 한글서예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등재를 통해 전 세계에 그 가치를 알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2025 예술인 파견지원사업 - 예술로 이음’ 참여 기업·기관 공개모집

전북문화관광재단, 올해 30여억원 사업비 투입 예술교육 기획 등 중점 추진… 내달 7일까지 이메일 접수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은 ‘2025 예술인파견지원사업-예술로 이음’에 참여할 기업·기관(마을)을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예술인의 직업적 안정과 및 예술의 사회적 가치 확산을 목적으로 예술인과 기업·기관(마을) 간 확장된 파트너십 기반의 협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7개 기업·기관과 38명의 리더·참여예술인이 6개월간의 협업을 통해 △기관 내 복합문화공간 창출, △문화재 기획 및 공연, △예술 자서전 프로젝트 등 총 7개의 예술 협업 프로젝트를 발굴한 바 있다.
올해는 약 3억원의 사업비를 바탕으로 기업·기관(마을) 8개소를 모집, 향후 선정되는 참여예술인과 함께 △사회 공헌 및 사회문제

해결, △기업·기관 조직문화, △지역 환경·생태 문제 해결, △전시 기획(실행), △예술교육 기획(실행) 등의 프로젝트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공모 지원 자격으로는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예술협업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및 협조가 가능해야 한다.
선정된 기업·기관(마을)에는 리더 예술인 1명, 참여 예술인 4~5명이 매칭돼 협업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으며, 예술인의 활동비는 재단이 지원한다.
신청서 양식 및 공모 내용은 재단 공식 누리집(www.jbct.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서는 4월 7일까지 이메일(jbart2024@hanmail.net)로 접수하면 된다.
홍승광 문화예술본부장은 “예술로 이음 사업

의 지원으로 기업과 예술인의 협업을 통한 다채로운 프로젝트가 기대된다”며 “사회적 가치 창출을 원하는 기업·기관(마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예술인파견지원사업-예술로 이음’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운영하는 공모 사업으로, 기업·기관(마을)과 예술인을 예술로써 잇는다는 의미를 지닌다. 재단은 올해 6년 연속 선정돼 총사업비 3억4609만 원을 지원받았다.
자세한 내용은 예술인복지증진센터(063-230-7430)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자름길

‘천 원으로 즐기는 영화’ 무주서 즐기려

무주산골영화관 시네마 데이… 12월까지 매주 셋째 주 수요일
오늘은 ‘은빛살구’ 상영… 배우 안석환과의 대화시간도 마련

‘천 원으로 즐기는 영화’가 화제다. 무주군에 따르면 25일부터 무주산골영화관 시네마 데이가 운영되며 12월까지 매주 셋째 주 수요일에는 ‘천 원 영화’를 즐길 수 있다.
‘무주산골영화관 시네마 데이’의 시작을 알리게 될 ‘은빛살구’(감독 장민진)는 제12회 무주산골영화제 상영작으로 세대를 넘어선 가족간의 사랑과 갈등을 담아 호평을 받은 작품이다.
영화 상영 전후로 ‘은빛살구’에서 열연했던 안석환 배우가 무대인사를 비롯해 대화의 시간에 함께 할 예정이어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안석환 배우는 이 영화로 산골영화제에 참석하게 되면서 무주와 인연을 맺었으며 지난해부터 재능기부를 통해 무주와 만나고 있다. 2월에는 무주중학교 및 무주고등학교 학생, 교

사들과 함께 연극 ‘우리 무주’를 무대에 올려 찬사를 받았다.
무주군청 태권문화와 문화정책팀 임정희 팀장은 “연중 진행될 시네마 데이가 군민 여러분이 부담 없이 영화를 즐기고 삶의 여유를 만들어 가는 데 필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복지 프로그램을 발굴해 군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무주산골영화관 시네마 데이는 군민의 새로운 문화 경험을 위해 다양한 문화 활동을 적극 지원(사회공헌 활동)하기 위해 산골영화관과 한국수력원자력(주) 무주양수발전소(소장 양해연)가 함께 진행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무주산골영화관 홈페이지 및 SNS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국립현대미술관 호남권 분관 전북에 설치를”

염영선 도의원, 건의안 발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염영선 의원(정읍2)이 24일 제417회 임시회에서 국립현대미술관 호남권 분관을 전북에 설치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해 눈길을 끈다.
염 의원은 이날 “국립현대미술관은 과천관·덕수궁관·서울관·청주관이 운영 중이며 대전관·진주관·대구관이 추진 중으로 유일하게 호남권만 분관이 없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월 박물관미술관법 개정으로 호남권역 분관 신설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오래전부터 준비해 온 광주에 비해 전북은 후발주자로 준비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고 밝혔다.
염 의원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문화향유 격



차가 날로 커져 지방소멸을 부추기는 원인으로 지적됐고, 그간 전북이 광주·전남과 함께 호남권으로 분류되어 많은 것을 희생하고 양보해 온 만큼, 전북도민의 문화소외를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국립현대미술관 호남권 분관이 전북에 설치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염 의원은 ‘국립현대미술관 분관 설치’를 통해 전북자치도가 전 세계적인 문화관광도시로 성장하기를 희망한다며 “이를 위해 전북자치도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태권도진흥재단, ‘2025 영동세계국악엑스포 성공개최 기원’

국악엑스포 조직위와 협약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김중현)은 24일 영동군청에서, 2025 영동세계국악엑스포 조직위원회(공동위원장 김영환 충북도지사, 정영철 영동군수, 윤영달 크라운해태제과 회장)와 상호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태권도진흥재단 김중현 이사장과 조직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정영철 영동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기 태권도 진흥 및 영동세계국악엑스포 성공 개최’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2025 영동세계국악엑스포’와 ‘태권도원’을 연계한 관광을 비롯해 문화 예술 분야 협력과 지원 등에 나설 예정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한편, 2025 영동세계국악엑스포는 ‘국악의 향기, 세계를 뒤흔들다’라는 주제로 오는 9월 12일부터 10월 11일까지 영동군 일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무주=전문선 기자